

유쾌한 노력파! KBS '한준희' 해설위원

※ 이 인터뷰는 2006년 월드컵 직전에 [dcinside.com]에서 실렸던 내용으로, 현재는 해당 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인터뷰가 시작되자 한준희 KBS 해설위원이 처음으로 건넨 말이다. 그리고 사무실 한쪽 벽면에 붙여진 '드록바' 선수의 사진을 가리키며 이 앞에서 꼭 촬영을 해달라고 한다. 한준희 해설위원과 첼시의 디디에 드록바 선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아직도 '드록바, 드록바, 드록바, 왼발, 왼발, 아악~'이라고 외치던 한준희 해설위원의 사우팅을 잊지 못하는 팬들이 많다.

누구보다 디시인사이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한준희 해설위원은 '열린' 마음으로 인터뷰에 응했다. 호탕한 웃음소리, 맛깔스러운 언변, 거침없는 솔직함... 유쾌한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와 텔레파시가 통하는 것 같다는 한준희 해설위원 역시 아주 유쾌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유쾌함 속에 감춰진 또 하나의 모습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그가 진정한 '노력파'라는 사실이다.



- 디시인사이드(이하 디시)를 알고 계세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혹시 갤러리도 들어오세요?

네. 국축갤(국내 축구 갤러리)과 해축갤(해외 축구 갤러리)에 주로 갑니다.

- 저희가 두 갤러리에 한준희 해설위원님 관련 질문을 올려 달라고 공지를 띄웠는데 수백 개의 리플이 달렸어요.

하하.(웃음) 사실은 봤습니다. 갤러리에 들어가니까 딱 공지사항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 보셨어요? 디시인사이드 이용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이 갤러리에 자주 오시는지, 활동을 하시는데 관한 거였어요.

저는 한 5,6년 전에 사커라인에서 활동한 이후 사실 공식적으로 쓰는 것 말고는 게시판 활동을 접었어요. 게시판 활동이 어려운 면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소위 '눈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 관련 분 중에 디시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ESPN의 정효웅 해설위원, 정우영 아나운서, KBS '비바! K-리그'의 이태

웅 PD와 김영나 작가 등이 모두 이용하고 있어요.

- **한준희 해설위원님은 갤러리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맨 처음에 '그런 곳이 있어?' 하고 봤는데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보다 신선한 시각이 있더라고요. 디시 인터넷 뷰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 정의로운 시각이라고 여겨지는 것들도 좀 있고요.(웃음) 그리고 재미있어요. 제가 봤을 땐 가장 유쾌한 사이트인 것 같아요.

- **축구 갤러리에 악플이 없는 사람이 딱 두 명 있는데, 바로 '드록바' 선수와 '한준희' 해설위원님이라고 하더라고요.**

하하. 가끔 악플 있던데요? (웃음)

- **(웃음) 가끔 있는 정도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저하고 텔레파시가 비슷한 분들이 디시를 많이 이용하시는 거 아닐까요? 디시 이용자분들이 제 마음을 잘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웃음)

- **혹시 축구갤러리 외에 다른 갤러리도 방문하시나요?**

유감스럽게도 다른 곳은... 제가 정보습득을 제외하고는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지 않아서요. 다른 갤러리까지는 아직 발전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태웅 PD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유용한 갤러리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한준희 해설위원님 하면, '샤우팅'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웃음) 이제는 의식이 좀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데 만약 의식을 하고 그런 샤우팅을 구사한다면 아마도 디시 분들이 딱 알아보시고 싫어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일부러 하는 거구나'하고요. 샤우팅이라는 주제 자체는 의식을 하죠. 샤우팅이 약하다 싶으면 '오늘은 조용해서 재미가 없었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해야지'하고 일부러 하진 않아요. 일부러 하면 티가 나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악플 이야기로 돌아가면, 제 생각에는 저에 관한 악플이 적은 이유가 시청자, 네티즌 여러분께서 '마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마음으로 보시기에 제가 그리 기분 나쁜 사람으로는 비치지 않는 것 같아 다행스럽게 여기고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일부러 싸우팅을 한다면 조만간 기분 나쁜 사람이 될 거예요.(웃음)

- 그럼 평소에 목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지금 제가 목이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평소에는 거의 관리를 못 해요. 전성기 때 같으면 고음이 더 나올 거예요. 제가 지금은 흡연을 많이 해서... 모든 분들께 담배를 끊으시라고 전해 주십시오.(웃음) 제가 흡연을 많이 해서 음질도 그렇고, 음역도 '도레미파솔라시도'로 따지면 건반이 4, 5개 떨어졌어요.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친구 한 명이 저를 '파리넬리'라고 불렀거든요.(웃음)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목이 많이 상해서.

- 해설위원님의 싸우팅이 벨 소리로까지 만들어졌는데, 들어 보셨나요?

네. 한 번 들어봤어요. 벨 소리가 나온 초기에 사커라인 필진 중의 한 명이 '한 번 들어봐'라며 들려줬죠. '드록바, 드록바, 드록바, 원발, 원발, 아악~' 그게 나오더라고요.

- 들어보니 어떠셨어요?

요즘은 별걸 다 벨 소리로 만드느구나 생각했죠.(웃음)

- 많이 유명해지셨는데 길거리에서 알아보시는 분도 많나요?

저 어렸을 적만 해도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지나가면 '와~' 그랬는데 요즘은 사회가 많이 발전해서, 제 생각에는 알아보기도 가만히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가끔 밥 먹고 있을 때 인사하는 분들은 계시죠. 그런 건 느껴요. 그런데 사실 얼굴이 많이 팔린다는 게 불편한 점도 있어요.(웃음) 물론 좋은 면도 있고요.

- 사인도 많이 부탁하시죠?

네. 사인도 많이 요구받는 편인 것 같아요. 물론 축구장 같은 곳에 가면 많이 부탁받는 편이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 인기를 실감하시나요?

그런데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느낌이 달라지는 순간, 저는 그 순간이 망하기 시작하는 순간인 것 같아요. 느끼긴 하지만 누리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아요. 농담 식으로 '인기가 많으면 뭔가 많이 생겨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걸 보니 인기가 없나 보다'라고 하는데, 내가 인기가 있다고 크게 인식하는 순간이 망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살아요. 항상 처음 시작할 때의 긴장감과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동안 하신 인터뷰를 통해서 축구를 접하게 된 계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네. 그 질문은 인터뷰할 때마다 물어보시더라고요.(웃음)

-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저는 원래 어려서부터 축구뿐만 아니라 농구, 배구, 야구 등을 두루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때는 골목에 나오면 다 축구를 했어요. 그리고 82년에 프로야구가 출범되면서부터는 다 야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생이 됐을 땐 다 농구를 했어요. 그 변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다 좋아했어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저보고 '너는 스포츠 선수 이름을 몇 천명 외우고 있을 시간에 공부를 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죠. 그중에서도 축구가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저는 지금도 70년대 후반 그때쯤의 선수들을 많이 좋아해요. 월드컵과 같은 성적은 없었지만, 그때 선수들이 참 잘했던 것처럼 느껴져요. 그 멤버들이 지금 대부분 감독님이시죠. 모든 스포츠가 그 무렵 가장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 어려서부터 굉장히 똑똑하셨던 것 같아요. 선수들 이름을 지금까지 기억하시네요.
저는 어떤 사람이든 특정 영역에 우수한 분야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일부러 선수 이름을 외우는 줄 아시는데 사실은 그냥 외워지는 게 많아요. 영화배우 이름도 참 많이 외웠어요.(웃음)
- 유학 시절에는 전공이 다른 분야였는데, 축구의 길로 들어서면서 갈등이나 후회는 없었나요?
있었죠. 그런데 저는 워낙 인생이 왔다 갔다 했어요.(웃음) 원래 제가 학부는 해양학과, 이공계를 전공했어

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짜 공부한 건 영미 철학이었죠. 한 10년을 공부했어요. 그 이후에 축구의 길로 접어들게 된 거죠. 좋아하는 분야에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큰 방향전환을 한 건 아니었고요. 그래도 부모님을 설득하는 문제도 있었고 위험이 많았죠. 지금도 위험하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위험하게 살고 있어요.(웃음) 그런데 전 결단력은 빠른 편이에요. 한다고 마음먹으면 바로 하고, 물건 살 때도 오래 안 골라요.

- 정말 축구의 길로 접어들 때 부모님의 반대가 심하셨을 것 같아요.

걱정은 많이 하셨는데 반대는 심하지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 지금은 아주 좋아하시죠?

지금도...(웃음) 생기는 게 없으니까 걱정이 많으시죠.(웃음)



- 축구의 여러 분야 중에서도 해설가의 길을 걷게된 동기가 있으세요?

해설가가 하고 싶다고 해서 누가 시켜준 건 아니고요, 갑자기 MBC에서 연락이 왔어요.'한 번 해봐라' 하고. 처음에 저와 호흡을 맞추신 분이 당시 최창섭 국장님이셨는데, 최창섭 캐스터님께 굉장히 고마워요. 왜냐하면, 제가 첫 방송을 잘 못했으면 그날 바로 잘렸을 거예요. 그런데 최 캐스터님이 옆에 있는 사람을 잘 북돋워주는 스타일이셔서, 아직도 고마움을 느낍니다.

- 축구 해설을위해 어떤 부분을 주로 준비하시나요?

아는 선수들이라도 다시 보고, 저는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예전부터 봤기 때문에 아는 것도 많고 잘 외우고 그런 것보다는 '준비한 만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디시의 많은 팬이 한준희는 어떤 선수의 사돈의 팔촌까지 안다고 하시는데, 그게 대비와 준비를 하다 보면 알게 되더라고요. 행운도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오는 거죠.

처음에 MBC에서 나오라고 했을 때는 걱정이 많았어요. 그 당시가 사커라인이 2, 3년 될 때인데 이제는 우리도 해설자 한 명쯤은 배출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이 오고 갈 때였거든요. 그중에서 나이가 많은 제가 나가서 한 번에 퇴짜를 맞으면 얼마나 그럴겠어요. 저는 사커라인의 동생들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2~3일 동안 정말 많이 준비했어요.

사실 요즘에는 준비한 것을 다 쓰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해설자에게 다 해당하는 이야기인데 자기가 경기를 위해 준비한 것을 다 쓰려고 하다 보면 맥락이 맞지 않는 장면에서 말이 튀어나와 어색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준비해놓은 것을 다 풀어놓지 않는 게 좋은 방송이라고 생각해요. 풀어 놓더라도 맥락이 와 닿을 때 풀어놔야 하는 거죠.

제가 해설을 시작할 때 한 가지 가슴에 새겼던 것이 '내가 시청자의 입장일 때를 생각하자'였어요. 아마 저를 보면서 디시의 많은 시청자 여러분도 '나 같으면 이렇게 할 텐데, 이런 말을 할 텐데'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시청자일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대표적인 것이 관중석의 사람을 맞추는 거예요. 사실 외국방송에서 관중석의 사람과 선수의 얼굴을 번갈아 보여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시청자 입장이었을 때 관중석의 어떤 사람을 5초 정도 보여주는데 해설가가 아무 말도 없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건 올바른 중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최대한 저런 부분을 담아내야지'라고 생각했죠. 그것이 비록 축구 중계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도요. 시청자일 때 갈등을 느꼈던 부분을 나는 잘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어요. 하지만, 또 시청자 입장에서는 저의 중계에서 갈등을 느끼는 부분이 있겠죠?

- 중계하실때 특별히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나요?

제가 국내 경기 중계를 많이 해보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 K-리그 중계할 때 제가 신경 쓰는 부분은 '조금 덜 알려진 선수들을 많이 소개해 주자'예요. 대표 선수라든가 언론매체에 자주 소개되는 선수들보다는 덜 알려진 선수에 대한 소개를 많이 하자는 게 국내 경기 중계에서 가장 신경 쓰는 대목이에요.

해외 경기 중계도 비슷해요. 잘 알려진 팀과 그렇지 않은 팀이 경기를 할 때 저는 최대한 잘 알려지지 않은 팀을 국내 팬들에게 소개해주려고 해요. 최소한 55:45 정도로 맞추려고 하죠. 예를 들어 8:2의 비율로 중계를 하는 건 좋은 중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도 제가 시청자였을 때 불편하게 느꼈던 부분 중 하나예요. 저는 유명한 팀과 덜 유명한 팀이 있을 때 덜 유명한 팀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할애하려고 해요.

- 축구 선수들의 가족이나 유명 인사 등을 잘 알고 계신 것도 이런 이유에서인가요?

전부터 경기를 자주 보기 때문이기도 하고 준비도 많이 해요. 아는 부분도 하루 전에 한 번 더 정보를 찾아봐요. 예측도 아는 만큼 할 수 있거든요. 알던 사람이라도 갑자기 딱 화면에 잡혔을 때 순간적으로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대비한 만큼 할 수 있는 거죠. 또, 아는 것을 확인하다 보면 보너스 정보가 생기기도 해요. 관중석에 있는 사람을 모두 다 알 순 없죠.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아요. 가끔 '현지 중계 듣고 동시통역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대답하고 싶은 것은 동시통역도 아는 만큼 들린다는 거죠. 연료와 비례한 면도 있고, 자신이 미리 사진이라도 한 번 더 보고 준비를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현지 중계 코멘터리가 항상 존재하는 것도 아니죠. 방송사마다, 그리고 중계 콘텐츠가 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 지금까지 중계하신 경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뭔가요?

조금 어려운 질문인데요.(웃음) 드록바 선수가 나왔던 경기는 제가 기억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기억에 남게 됐죠.(웃음) '레알 마드리드' 대 '유벤투스' 경기가 기억에 남고요, 또 KBS에서 중계했던 '브라질' 대 '칠레' 경기도 기억에 남아요. 월드컵 직전에는 '프랑스'와 '슬로바키아'가 경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경기가 기억에 남는 이유는 제가 그때 차가 많이 막혀서 늦게 도착했거든요.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도착한 지 몇 분 안 돼서 바로 중계에 들어갔죠. 그래서 기억에 남네요. 그리고 K리그 경기는 포항과 부산의 경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 직접 중계하신경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골 장면은요?

중계한 것 중에서는 가장 최근에 중계했던 경기가 기억에 남는데.(웃음) 가장 최근 경기를 보면, 지난 시즌 FA컵 결승전에서 '리버풀' 대 '웨스트햄' 경기에서 제라드 선수의 골이 기억에 남아요.



- 개인적으로 자신과 호흡이 잘 맞는 캐스터는 누가있나요?

KBS지상파 최승돈, KBS SKY 김동연, MBC ESPN 경우영, 방송과 관계없이 다른 곳에서 할 때는 박찬 캐스터가 있습니다.

- 국내/해외 축구팀 중에서 가장 중계하고 싶은 경기가 있으세요?

국내 팀은 제가 아직 K리그 경기를 몇 팀 못 해봤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씩은 다 해보고 싶어요. 해외 팀은 제가 도전해야 하는 영역인데요. 스페인 프리메가리가 경기는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가장 못 해봤던 경기가 스페인 리그라서 한 번쯤은 해보고 싶어요.

- 선수 출신해설가들이 자리를 잡으면 비 선수 출신 해설가는 자리를 내줘야 한다는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 지금도 그생각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렇죠. 해설은 '조화'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축구 방송에는 조화로운 해설가가 부족해요. 선수출신 해설가의 부족한 부분을 비 선수 출신 해설가가 채워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비 선수 출신 해설가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꼭 선수 출신 해설가가 조화로운 해설을 할 수 있다는 건 아니고 비 선수 출신 해설가도 얼마든지 조화로움이 가능한데 그래도 선수출신 해설가가 그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비 선수 출신 해설가가 요즘 최초로 있는 현상은 아니예요. 옛날부터 종목별로 비 선수 출신 해설가가 많았어요. 축구에도 언론인이나 기자출신 해설가분들이 예전부터 있었어요. 요즘부터 생긴 현상이 절대 아니예요. 이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 해설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축구의 매력은 뭔가요?

축구의 본질적인 속성으로부터 유래하는 많은 매력이 있겠죠. 그런데 분명 축구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딱 가운데서 판단했을 때는 축구를 싫어하시는 분들의 이유가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스포츠는 어느 종목이든 같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한 전체를 관통하는 한 종류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저는 그 매력에 이 종목도 좋아하고, 저 종목도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요즘은 사회가 다원화돼서 그런지 좋아하는 종목이 나뉘더라고요.

축구는 그라운드 안에 한 번 들어가면 하프 타임이 될 때까지 생각할 여지가 없잖아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그 안에서 선수들이 상황에 맞춰 임기응변으로 반응해야 해요. 또 예를 들어, 농구는 100점도 가능하지만 축구는 한 골이 나올까 말까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짜증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런 점이 짜릿하다고 해요. 온종일 부진했던 선수가 한 골을 넣었을 때, 그것만으로도 축구에서 가치가 있어요. 그걸로도 그 선수에게는 팬이 있을 거고요. 네티즌 분들이 '로또 샷'에 강하다는 말을 쓰기도 하시는데, 사실 '로또 샷'이 되는 분야가 축구거든요.

또, 축구는 아무리 개별적 능력이 우수한 선수들을 모아놔도 항상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투자의 효용대비 가치가 제일 적은 스포츠이자 그래서 이번도 많이 일어나는 스포츠가 축구예요. 이런 점도 축구의 매력이죠.



- K리그 중계 횟수나 관중 수가 적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양쪽의 입장을 모두 이해해요. 절반은 방송사에 몸을 담고 있고, 절반은 순수한 축구 팬의 입장인데요. 축구 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시청률이 안 나오는 경우가 사실은 다반사예요. 저는 지상파가 스포츠 방송을 하는 것에 한계가 많다고 생각해요. 편성 자체가 잘 안 되고요. 현실적으로 지상파가 스포츠를 많이 방송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저는 스포츠 케이블이 지금보다 조금 더 전문화된방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아마도 중계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지금 스포츠 케이블도 어떤 곳은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곳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체적으로 좀 더 스포츠의 전문적인 콘텐츠를 확보해서 그 경쟁에서 뒤처지면 도태가 되어야 하죠.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스포츠 케이블 방송산업이 조금 더 제대로 된 모습이 갖춰지면 K리그 중계를 거기서 좀 많이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방송에 많이 노출되는 것만큼 좋은 건 없거든요. 그게 사실은 최고의 선전이에요. '비바! K-리그'도 좋지 않은 시간대에 방송을 해서 축구팬들의 불만이 있었는데 연맹이 이런 문제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방송사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스포츠에 대한시청률을 너무 단기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1년, 2년 꾸준히 하다 보면 정착이 되고 시청률이 올라가서 그다음부터는 이익이 남는 콘텐츠가 될 수 있거든요. 그 기간을 참을 수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방송사도 인내력을 가지고, 스포츠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좀 달리해야 되요.

유럽 리그 하이라이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아주 좋은 시간대인 저녁 9시나 10시 대에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에 된 것이 아니라 20년, 30년 동안 개편을 안 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프로그램을 안 보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스포츠는 어차피 단기간에 승부 볼 것이 아니예요. 꾸준히 하면 나중에 빛을 본다고 생각해요. 당장 시청률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축구 팬들의 바람이 옳다고 생각해요. 방송을 해주면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걸리느냐는 거죠. 해주는 만큼 분명 팬은 늘어날 거예요.

- 현재의 K리그에서 어떤 점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가장 당면한 문제는 플레이오프제도 문제고, 드래프트제에도 문제가 있죠. 이번에 고양의 승격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우리 축구가 임기응변이나 임시방편에 의한 것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하면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장기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은 정책들이 많이 있어요.

-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먼저 연고이전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연고이전이나 국민은행 승격 문제의 공통적인 근원은 구단을 만드는 주체에 있다고 생각해요. '팀을 누가 만들었느냐?'죠. 이것이 우리 프로 축구의 태생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외국의 오래된 구단은 만든 주체가 기업이 아니고 시민들이예요. 우리는 만든 주체가 시민이 아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승강제'가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내셔널리그의 프로화와 더불어 K리그 측에서도 '규모가 작은 클럽들'의 K리그 참여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대 클럽들이 리그 전체의 사이즈 성장을 주도하는 클럽들이라면, 소규모 클럽들은 지역민들의 사랑을 바탕으로 나름의 특성화에 성공하면서 거대 클럽들과 섞여 싸우는 것이 선진화된 리그가 돌아가는 모습이거든요. 물론 이러한 지향점을 향해 나아가려면 당장 국회에 계류 중인 '스포츠산업진흥법'이 통과되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존재하죠.

- 유럽 리그와 비교했을 때 K리그의 수준은 어떤가요?

그건 모르죠. 물어봐야 알죠.(웃음) 시스템의 차이는 엄청나다고 봐야 하고요, 그쪽은 보통 7부 리그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게 피라미드 구조거든요. 우리와 다르죠. 수준 면에서는 그걸 수치상으로 계량화해서 애

기하기가 어려워요. K리그에는 ‘호나우딩요’나 ‘티에리 앙리’가 없다는 그런 정도의 차이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 시민구단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국외에 벤치마킹할 구단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일본이 우리보다 실력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구단운영에 있어서는 벤치마킹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J 리그에는 조그만 구단들이 상당히 많아요. 작은 구단인데 승격을 제대로 해서 J1 리그에서 활약을 하는 구단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모 구단 같은 경우에는 연말이 되면 선수들이 보육원도 찾아가고 사인회도 하는데, 그런 활동이 나중에 연봉협상을 할 때 반영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 선수들도 의식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만약 내가 연봉이 5억이라면 구단을 위해서 5억 1천만 원은 벌어야 해요. 나를 보려고 오는 팬들의 입장수익이나 혹은 나로 인한 총체적인 수익이 자기가 가져가는 연봉보다는 조금 많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구단들이 그런가 하는 거죠. 구단행정과 마케팅 의식 부재의 결과일 수도 있고, 선수들 자신들도 프로의식이 결여되어 있어요.

아까 기업이 만든 구단, 거기서 모든 문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선수들도 자신이 기업의 직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약간 그런 인식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월급이 나오니까요. 더 적극적으로 팬들 사이에 가서 묻히고, 언론이 선수들을 드러낼 때도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팬들 사이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도 마케팅의 중요한 일환이거든요.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할 대표적인 구단은 일본의 ‘오이타’예요. 조그만 구단이 살아가는 법의 모범이죠. 예를 들어 오이타 구단의 단장은 구단을 홍보하려고 한 시즌에 강연 등을 몇백 차례 나가요. 그렇게 해서 시민들 사이에 파고 들죠. 그래서 조그만 구단임에도 잘 살고 있어요. 우리 시민구단도 기업구단보다 좀 더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선수들까지 포함해서 조금 더 적극적이 되어야 해요. 축구 실력의 문제와는 별도로 벤치마킹할 구단은 J 리그인 것 같아요.

- 한국 축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유소년을 가르치는 좋은 지도자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도자분들이 초등학교 시합에서 지면 심판을 탓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 앞에서 보여주는 모습 중에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어린 선수들은 그걸 보고 그대로 자라거든요. 그럼 아이의 마음에는 심판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이 선수가 더 커서 감독이 되면 또 똑같은 일을 하게 되죠. 심판 때문에 졌다고요. 한국 축구의 미래는 어린 선수에 대한 교육에서 결판난다고 생각해요. 외국 경기에도 오심이 있고, 잘못된 판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감독은 ‘오늘 경기에서 우리에게 부당한 판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상대팀이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심판에 관한 시각뿐만 아니라 좋은 지도자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지도자분들도 피해자일 수 있죠. 협회가 지도자 교육에 조금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유명한 국가대표 감독을 데려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 축구가 제대로 되려면 지도자들의 수준이 올라가야 해요. 그러다 보면 국가대표 감독을 외국에서 데려올 필요도 없을 거고요. 풀뿌리 지도자들이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 이제 개인적인 질문으로 넘어가서, 축구 잘하세요?

어떤 사람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웃음)

- 조기 축구회나 활동하는 모임 있으세요?

동네 축구팀 감독했어요. 저를 어느 날 갑자기 감독으로 앉혀서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어요.(웃음)

- 지금도 하고계세요?

그게 한창 하다가 선수들이 하나 둘씩 군대에 갔어요. 그러면서 자동 와해하기도 했는데 얼마 전에 두어 번 모여서 한 적 있어요.



- 주로 맡는 포지션은 뭐예요?

미국에서 왔을 때 사커라인 필진이 축구 하자고 한강에 데리고 나간 적이 있어요. 택시 운전기사 분들과 섞여서 했는데 심장마비로 죽을 뻔했어요.(웃음) 그냥 20분 뛰다가 그다음에는 수비만 봤어요. 아마 지금 뭘 다면 가장 적합한 위치는 수비가 아닐까.(웃음)

- 축구 외에 주로 하는 스포츠 있으세요?

지금 하는 스포츠는 숨쉬기 운동이나 걷기 운동밖에 없어요.(웃음) 저는 일단 골프는 안 치고, 요즘엔 테니스나 탁구 치기도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테니스장, 탁구장이 아주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별로 없더라고요. 지금 별다르게 하는 운동이 없어요. 아마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예요. 운동부족으로.(웃음)

- 결혼하신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요?(웃음)

아주 걱정이 많아요. 운동을 안 해서.

- 스포츠 말고 노래에도 관심이 많다고 들었어요.

네. 친구가 저를 '파리넬리'라고 불렀죠.(웃음)

- 그럼 주로 부르시는 노래는 뭐예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노래방을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은 가야 직성이 풀리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2, 3개월 동안 못 간 것 같아요. 그런데 노래를 옛날보다 훨씬 못해요. 그래서 그게 가슴이 아파요. 요즘 노래는 빨라서 잘 못 부르겠고요. 우리나라 노래든 외국 노래든 옛날 노래 자주 불러요. 트로트는 잘 못 부르구요.

- 혹시 해설가가 아닌 축구감독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하신 적 없으세요?

그건 더 안되죠.해설은 외려 비 선수 출신들이 과거부터 소화를 해왔던 영역이지만 감독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한다면 정말로 지금부터 머리 싸매고 10년 동안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고 감독 밑에 들어가서 몇 년 배우고, 그러면 혹시 모르죠. 물론 비 선수 출신이 감독을 아예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만한 과정을 밟으면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죠.



- 만약에 감독을하신다면 어떤 팀을 맡고 싶으세요?

(웃음) 감독을 한다면 맡아보고 싶은 팀이 강등권에서 간신히 살아남을까, 말까 한 팀이요. 한 번 맡고 만약 강등당하면 그냥 떠나고.(웃음) 그런 팀을 해보고 싶어요. 살아남으면 영웅이고, 아니면 그 해에 끝나는 거고요.

- 가장 좋아하는 축구팀이나 선수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굳이 말하자면 클럽에서는, 제가 예전에 인터넷 방송에서도 공개한 적이 있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이예요. 사실은 제가 사커라인에서 맨 처음 쓴 글 자체가 맨유에 관한 글이었어요. 그리고 K리그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관심 가는 팀이 있는데 말하기가... 문제성의 소지가 있어서요. 해설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가 '공정성'이예요. 그것은 나도 공정하게 해야 하고, 듣는 분들도 공정하게 느껴야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 제가 누구 팬이라고 말을 하면 그다음에 혹시 그 팀에 관한 얘기가 나올 때 듣는 분들이 공정하게 안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 많은 분이 MBC ESPN에서 KBS로 옮겼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옮긴 건 아니고요. 팬 여러분이 아셔야 할 부분이 지상파하고 케이블하고 엄밀히 구별되는 관계거든요. 제가 이 기회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KBS SKY에 대한 비판은 KBS SKY 게시판에, KBS에 대한 비판은 KBS 지상파 게시판에, MBC ESPN에 대한 비판은 ESPN 게시판에서 하셔야 해요. 그게 사실은 다르거든요. 사무실도 다르고 사람들도 다르고 체제가 완전히 달라요.

어떤 분들은 제가 MBC 지상파에 있다가 ESPN에도 나온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예요. 가끔 MBC에서 해설했던 것을 ESPN에서 재방송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제 모습이 나온 거고요. ESPN은 박지성, 이영표 선수 진출할 때 그때부터 했어요. 그때부터 반년 정도 한 거죠. ESPN 생활이 가장 짧은 생활이었는데 그때 임팩트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한준희' 하면 ESPN으로 기억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은데 사실 ESPN은 가장 길지 않은 생활이었고, 전속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MBC ESPN 첫 중계보다 KBS '브라질-

칠레' 중계가 더 빨라요. 아까 기억에 남는 경기가 '브라질' 대 '칠레' 경기라고 했는데 그게 제가 KBS에서 했던 최초의 중계예요. 그래서 기억에 남아요. KBS에 이미 나가는 상황에서 서로 양해 하에 반년 정도 활동했어요. KBS에서도 나오고 있었고 ESPN에도 나오고 있었고, 옮긴 상황은 아니에요.

- 자주 얼굴을 못 보게 된 것 같아서 서운하시다는 분들이 있어요.
감사합니다.(웃음)



- 결혼을 하셨는데, 공개된 정보가 없어서 궁금한 점이 많아요.
아... 축구계에서 종사하시던 분이구요, 지금은 그만뒀습니다.
- 나이 차이가 있으신가요?
아내가 저보다 두 살 아래입니다.
- 그럼 연애는 얼마나 하셨어요?
연애는 한 10개월, 11개월 정도 했습니다. 저는 빠르다고 했잖아요.(웃음)
- 아까 전화통화하시는 거 들으니까 애교가 아주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노는 것을 보고 학을 떤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웃음)
- 성격이 잘 맞으시나 봐요.
네. 둘 다 장난 좋아하고, 밝고 그래요. 다혈질이고요.(웃음) 사우팅이 사실 다혈질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 2세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일단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육의 문제가 심각하기도 하고. 아직은 계획이 없어요.(웃음)

- 만약 2세가 축구 선수나 축구 관련 분야로 나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제가 돈이 별로 없어서, 돈을 많이 깨 먹지 않는 범위에서 하고 싶은 건 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 여가에는 주로 뭐하세요?
요즘 여가를 거의 못 가져요. 얼마 전에도 SBS 케이블 장원구 해설위원과 부부동반으로 1박 2일 설악산에 가려고 했는데 일이 생겨서 못 갔어요. 신혼여행도 안 갔을 뿐더러 여가 생활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 아내 분이 서운해 하지 않으세요?
신혼여행은 아내가 아예 안 간다고 못을 박았어요.(웃음) 아주 알뜰하신 분이예요.
- 만약 축구해설가가 안 됐다면 어떤 일을 하고 계실 것 같나요?
초등학교 때 꿈 중 하나가 '성우'였어요. MBC 지상파에 있을 때 스포츠 특선 시간에 챔피언스리그 매거진을 1년에 네 번 정도 했는데 그 번역을 제가 했어요. 사실은 번역보다 성우를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웃음) 또 다른 꿈은 가수였어요. 대중 가수일 수도 있고 오페라 가수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공부가 낫겠다고 자꾸 그래서.(웃음)
- 나중에 해설위원에서 물러나신다면 못 이룬 꿈에 도전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안될 거예요. 안 시켜줄 거예요. 그리고 목이 많이 상해서 요즘 가끔 노래방 가면 비애를 느껴요. 옛날 같으면 가볍게 되는데 요즘 같아서는 '뽕사리'가 나지를 않나. 제 생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해요.
- 큰 맘먹고 금연하시면 되잖아요.(웃음)
(한숨) 하여튼 경치 좋은 곳에 가서 노후를 보낼 때 끊을 것 같아요.



- 축구를 재미있게 즐기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어떤 팀을 응원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요즘엔 토토를 즐기시는 분도 많죠. 토토도 제가 봤을 땐 무리하지 않는 수준에서 하면 축구를 좋아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축구에 전혀 문외한이었는데 토토를 하려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전 팀의 스타일이 보이신대요. 그런데 서포터가 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서포터도 물론 법과 상식을 벗어나는 범위에서 하면 안 되겠죠. 여기에는 교과서적인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 중에는 잘생긴 남자 선수가 있어서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뭔가 하나 몰입할 수 있는 점을 만드는 게 좋은데 가장 교과서적인 답은 서포터가 되는 거죠.

- 토토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해보신 적 있으세요?

딱 한 번 있어요. 다 짱이었죠.(웃음) 몇 달 전만 해도 저에게 자문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본인들이 연구를 하시니까 안 물어봐요. 아무래도 축군데, 이번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토토를 할 성격이 아니에요. 같은 돈이면 차라리 로또를 한다고 할거예요.(웃음) 토토는 연구하고 신경 써서 해야 하잖아요. 로또는 자동으로 그냥 하면 되는데, 제 성격이 그래요. 신경 쓰는 걸 싫어하는 스타일이예요.

- 마지막으로 축구 해설가의 꿈을 갖는 사람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 때보다 오히려 지금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점점 인터넷의 힘이 세지고, 인터넷 언론이 많아지잖아요. 인터넷 언론에서 인정을 받으면 해설가로서의 진출 기회도 많이 늘지 않을까요? 요즘 인터넷 언론들도 기사를 뽑을 때 정말 그 분야에 애착, 열정을 가지신 분들을 주로 뽑잖아요. 당장 사커라인 같은 경우에도 배출한 사람이 아주 많아요. 축구 관련 사관학교처럼 됐죠. 사커라인 필진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더 큰 매체에 가서 할 수도 있어요.

저도 디시인사이드에서 찾아와주실 때나 한준희지, 이제 디시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되면 저는 끝나고 이제 후학이 나와야 하는 게 우리 사회의 냉혹한 현실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많아지면 비 선수 출신 해설가들의 중요한 덕목, 미세하고 세밀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약해지겠죠.

제가 부탁할 것은 간접적으로 얻은 지식 말고, 내가 연구해서 체득해야 한다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얻은 지식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정보로 해설을 할 순 있지만 가면 갈수록 예리한 팬들에게 외면받을 가능성이 커요. 많은 경기를 보고 자기의 지식으로 체득을 해서 그것을 풀어놔야만 수준 높은 팬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인터넷 검색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실제로 무조건 경기를 많이 보세요. 그리고 요즘엔 배울 곳이 많아요. 예를 들어 심판 강습회나 스포츠, 중계자 아카데미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운이죠. 요즘은 저 같이 운이 아니라 어느 정도 밭을 깊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 인정을 받아서 진출할 수도 있잖아요.

경기를 많이 보고 축구 해설에 도움이 되는 아카데미나 강습을 찾아 지식을 획득하세요. 사커라인 같은 인터넷 언론도 많기 때문에 거기서 필력을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준비를 꾸준히 하면 기회가 올 거예요. 또, 제가 봤을 때는 스포츠 전문 케이블 방송이 조금 더 전문화가 되면 수요도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겪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두 가지를 전하는 것으로 이번 인터뷰를 마무리 짓고자 한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인터뷰 요청을 위해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했을 때의 일이다. 다소 들뜬 마음으로 번호를 눌렀고, 흔쾌히 인터뷰를 허락해준 한준희 해설위원은 '선생님 편한 시간으로 정하죠', '선생님이 편한 장소가 어디신가요?'라며 존칭을 사용했다. '기자', '기자님'도 아닌 '선생님'이라는 존칭에 전화통화였음에도 몸 둘 바를 몰랐던 기억이 난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인터뷰 당일 날의 이야기다. 약속 시간을 조금 넘어 도착한 한준희 해설위원은 정말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거듭 죄송하다고 말했다. 사실 인터뷰를 진행할 때 상대방이 약속 시간에 늦는 경우를 자주 본다. 하지만 한준희 해설위원처럼 몸과 마음으로 미안함을 표현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다. 설령 한 두 시간을 기다렸더라도 얼었던 마음이 금세 눈 녹듯 풀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두 가지 에피소드로 내가 만난 한준희 해설위원에 대한 느낌을 다 전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따뜻함과 겸손함이 전해지기를 바래본다.